

JUNIOR - SPEAK **DREAMS**

JUNIOR HIGH & HIGH SCHOOL - SPEAK **LOVE**

COLLEGE - SPEAK **GOSPEL**

Sunday, **August 28, 2016**

Submission Deadline August 7, 2016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st SPEECH CONTEST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퀸즈장로교회

아가페 agape

월간 아가페 제390호 · 2016년 8월호

발행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 886-4040, 4347 Fax : 718) 358-7789

단기선교보고 특집

혼두라스/뉴멕시코/중국

심 성경에 나타난 바른 심
주님과 함께한 병상의 심
심 의학적 정의
자녀교육을 위한 심

교회의 역사와 함께한 시간들
70,80대 선교회의 밤

Gospel in Main St.

2016 · 8



담임 김성국 목사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과녁 혹은 통로?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하계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종목 가운데 양궁이 있습니다. 양궁에는 과녁이 있습니다. 수 없이 날아오는 화살을 받아들이느라 얼마나 아플까 싶습니다. 인생 가운데 과녁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의 온갖 화살을 맞아 상처로 비틀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갈만한 말 한마디도 가슴에 꽂아 놓고 밤잠을 못 이룹니다. 과녁처럼 막힌 인생이고 닫힌 인생입니다. 본인도 괴롭고 보는 이도 힘든 인생입니다.

동계 올림픽 종목에는 봅슬레이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특별히 제작된 썰매를 타고 긴 통로를 질주하는 경기입니다. 인생에는 통로인생이 있습니다. 통로인생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부정적 이야기는 다 지나보냅니다. 자기의 아픈 과거를 들추는 사람에게 “그게 어때서?” 라고 반문하면서 결코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통로로 온갖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인생입니다. 열린 인생입니다. 본인도 신나고 보는 이도 시원한 인생입니다.

과녁인생이십니까, 통로인생이십니까? 닫힌 인생입니까, 열린 인생입니까? 나는 과녁이 아니라 통로라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다고 말하십시오. 그 어떤 비난과 조롱의 화살도 내게 머물 수 없다고 외치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만이 흐를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닫힌 인생을 향해 "에바다(열려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열린 인생, 통로인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아름답습니다. 이 여름도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열방을 질주하는 단기 선교 팀들이 너무 귀합니다. 이들을 위해 시원하게 후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God blesses you to bless others."

"하나님은 다른 자들에게 복을 나누라고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



WELCOME

2016년 7월 새가족 안내

Korean Ministry



이영군



장기복



한준건·한준화



호유환



박정환



박수웅



김아영



김경준



송가현



이만기·김정희



오예림



김순자



이애민

Chinese Ministry



Daniel Chung



Stacey Sun



任真



何惠泳



佳佳



卢群



吴时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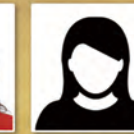
姜玉芳



孙山妹



孙秋莉



宋善华



左沁雪



张光贤



张娟



张瑜



张薇



戴宁



时雨希



木仁



朱青



朱骏康



李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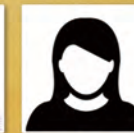
李建军



李晓萍



李赞华



松云



林耀亭



梁嘉明



梁月



潘铁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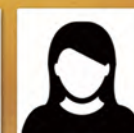
王振华



王萍



莉莉



薛纤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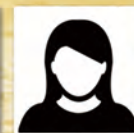
江海燕



潘伟丽



裴星福



路美



陈林弟



陈温丽



陈锐旭



高伟

Russian Ministry



Khan Tatyana



Khan Violetta



Anbinder Daniel



Anbinder Yelena



Lyan Yekaterina

네 믿음을 보이라

Show me your FAITH

Target or Passage?

The 2016 Summer Olympics is about to be held in Rio De Janeiro. Among the Olympic games, there is an Archery competition. In the sport of Archery, there is a target, and the target receives arrows shot by the archers. In the world today, there are people whose lives are like that of the target in the sport of Archery. They feel like they are shot by so many arrows from people, and because of that they have many sleepless nights. It is to the extent where even a meaningless word from another acts as a hurtful arrow that cannot simply be just passed away. They make their life difficult for themselves and suffer for it.

In the Winter Olympics, there is a sport called bobsleigh. Bobsleigh is a sport in which a two or four person team drives a specially designed sled down an ice track. In the world today, just as there are people who live their lives like the targets in archery, there are people who live their lives like the ice track in the sport Bobsleigh. To these kinds of people, any negative comments against them cannot hurt them. Just as a sled quickly passes through the ice track, they let go of all the negative thoughts, comments, or incidents, and become a passage that flows down positive influences to other people. These kinds of people make themselves and others joyful.

Between these two, what kind of life are you living now: as the target or as the passage? in openness or in isolation? Proclaim to yourself and to others that you are a passage and not a target. Do not be closed, rather be open to all, so that neither blame, nor mockery remains in you. Let only love and blessing flow from you.

Jesus shouted to those who are living a life of isolation and darkness, “Ephphatha (Be opened)” The life that is opened as a passage of goodness always looks beautiful - just like our short-term mission team and all the members who pray for them as their spiritual supporters.

标靶还是通道？

2016年的夏季奥运会即将在里约热内卢举行。在奥运会中有一项射箭比赛。在射箭运动里有一个箭靶，是接收射箭手所射出的箭。在现今的世代，有些人的生活就像射箭运动里的箭靶一样。他们觉得自己被许多人所射，也因为如此他们经常失眠。他们将别人所说的毫无意义的话语看作是伤人的箭，而因此无法放下。他们让自己活在困苦和忍受中。

在冬季奥运会里，有一项运动叫大雪橇。大雪橇这个运动是一项由两人或四人的组合驾着一个特别设计的雪橇滑下冰道。在现今的世代，虽然有些人的生命活得像箭靶，但也有些人的生命活得像大雪橇运动里的冰道。对他们来说，任何负面的评论都无法伤害到他们。就像一个雪橇快速的通过冰道，他们撇开一切的负面思想、批评、或冲突，将之看为一个通道流下，成为他人的正面影响。这些人使自己与他人快乐。

在这二者之间，你现在活的是哪种生命：如标靶还是通道？豁达还是孤立？向自己和别人宣告，你是一个通道而不是一个标靶。不要自我封闭，而是要心胸宽阔，以至于没有指责或嘲弄藏在你里面。唯让爱和祝福从你里头流出。

耶稣向那些活在孤立和黑暗中的人呼喊著，“以法大（开了吧）”一个开阔的生命有如一个美好的通道，总是那么的美---就如我们的短宣队和所有为他们祷告的属灵支持者。

8월 교회행사

- 14일(주) 사라 선교회 헌신예배
새가족 영유아 부모님 반
- 18~20일 청년선교부 여름 수련회
- 21일(주) 아브라함 선교회 헌신예배
- 24일(수) 아굴라 선교회 헌신예배
- 28일(주) 스피치 컨테스트
- 31일(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9월 교회행사

- 1일(목) 제자훈련 시작/ 영성훈련 시작
- 4일(주) 월례회
- 6일(화) 53기 전도폭발 훈련
- 7일(수) 지도원 성경공부
- 8일(목) 열린유아원 개강
- 9일(금) 구역예배
- 11일(주) 안나 선교회 헌신예배



월간 아가페 제390호 목차

- 2 신앙시론-과녁 혹은 통로? | 김성국 목사
- 5 목상의 글-선교사의 기도
- 6 담임목사 설교요약
- 2016 단기선교보고 특집 ■■■
- 8 온두라스·우리 삶의 이유되신 예수님 | 채현주 권사
GOD gave me strength and spirit. | Hannah Jeong
- 11 중국·그 땅에서도 맘껏 | 남형욱 집사
- 14 뉴멕시코·하나님은 하십니다 | 이소영 전도사
- 16 신앙간증·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신... | 정주영 집사
- 17 추천서적·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 18 70,80대 선교회의 밤·Great Dreamers! | 허경화 장로
- 20 GOSPEL ON MAIN STREET
■■■■■ 여름특집 '쉽' ■■■■■
- 22 주님과 함께 한 병상에서의 쉽 | 황은애 권사
- 23 여행은 쉽의 기회이자 교육의 기회 | 최윤희 권사
- 24 성경에 나타난 바른 쉽 | 배인구 전도사
- 25 주님 안에서의 마음의 평강 '쉽' | 한원희 집사
- 26 아이들에게 진정한 쉽을 주기 위하여... | 김재형 목사
- 27 쉽을 갖게하는 작은 여행 | 편집부
- 28 한여름 밤을 수놓은 사랑과 감동의 선율 | 편집부
- 30 QPEM - Out in the Desert Place | Jenny Whang
- 32 중국어 예배부·我在这里, 你差遣我! | 姜吉琼 执事
- 34 Ainos의 여름은 뜨겁다! | 이정훈 집사
- 36 방송실엔 예배의 숨결이 | 신성근 집사
- 38 양상블 이니즈와 함께 한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선교사의 기도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오게 하소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오게 하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보게 하소서!
나의 가르치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듣게 하소서!
나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라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느끼게 하소서!
나의 따뜻한 손길이 아닌
모든 것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광활한 품을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희생이 아니라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말하게 하소서!
나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만..
오직 주님만..
말하게 하소서!



7월 10일 / 다니엘 5:1-16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야 하는지 살펴보자.

벨사살 왕이 1000여명을 불러 잔치를 하는 왕궁의 석회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썼다. 본문 이후에 계속 밝혀지는 하나님의 심판 내용의 글이다.

“그 때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 벨사살 왕과 무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며 다른 신을 찬양할 때이다(단5:3-4). 하나님은 우리의 음식, 태도, 예배를 주시하시고 심판하신다. 1000명의 박수보다 한 분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벨사살 왕의 두려움(단 5:6)

자기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은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 루마니아 감옥에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성경에 ‘두려워 말라’ 와 같은 의미의 구절이 365번 있음을 알았다(사 43:1-2).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소식을 나눈 왕비(단5:10-12)

왕비는 그 술자리에 휘둘러 있지 않았고 어려운 소식을 듣고 들어와 현명한 제안을 한다. 다니엘을 기록한 신의 영을 가진 자로 민첩하고 지식이 총명하여 선대 왕의 꿈을 해석한 자라 소개한다. 성도는 밝고 좋은 소식을 나누고 전하는 자로 좋은 소식 중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삐딱한 벨사살 왕

왕비의 제안으로 다니엘을 부르나 왕은 두려워 하는 가운데 그를 깎아내리며 거드름을 피운다(단 5:13). 과거를 들쳐내 고통을 주고 교만과 의심의 마음을 담고 상급을 제안 한다(단 5:16).

‘다니엘을 부르소서’

마침내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이 되고 의문이 풀렸다. 다니엘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석하고 푸실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도 예수님은 심판 받을 사람 앞에서 땅에 무언가를 직접 쓰셨다.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

예수님께서 기록한 인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예수님께 물어야 한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 물은 제자들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듣는다. 인생의 답을 예수님께 물어 찾아야 한다. 기도가 인생의 난제를 푸는 열쇠이다.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글을 읽고 해석, 즉 말씀 속에 답이 있다.

(시 119:105) 기도와 말씀 속에 인생 문제에 해답이 있다.

7월 17일 / 다니엘 5:17-31

저울에 달아 보니

이 땅에서 아무리 높다하여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질서를 무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벨사살은 세상에서 높은 왕이었으나 하나님을 대적하였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

벨사살 왕은 귀인 1000명을 불러다가 벌인 술잔치 자리에서 손가락에 벽에 나타나 글을 쓰는 것을 보고 놀라 다니엘을 불러 해석을 하게한다. 본문에서 다니엘은 손가락이 쓴 글자와 그 해석 가운데 ‘데겔’ 이란 단어(단 5:25)는 달아 본다 즉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그의 저울을 가지시고 달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삼상 2:3b).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달아 보신다.

1. 마음의 위치가 어디인가(단 5:22-23a)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지 낮은 곳에 있는지 달아 보신다.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옛 마음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빌 2:5-8). 마음에서 나와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일곱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마 15:18).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일곱 족속을 확실히 정복한 것(신 7:1-2)과 같이 마음을 정리하고 정갈한 곳에 예수님 모셔야 젓과 꿀이 흐르는 마음이 된다.

2.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가(단 5:23b)

벨사살은 성전의 그릇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였다.

모든 사물은 지어진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아름답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호흡마다 자기에게 작정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는 것이다(단 5:23c).

내 생각 내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날 때도 죽을 때도 걱정되어 있다. 찬양하라, 아플 때도 있다, 울 때도 있다, 넘어질 때도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전 3:1-11a).

하나님은 마음의 위치를 달아 보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가 달아 보신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턱없이 부족하여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다(단 5:30-31).

(단 5:29) 벨사살은 자기의 종말에 대한 가련한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나아가지 않고(신 32:29) 도리어 누군가에게 명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즉각 돌이켜야 한다(신 32:29).

부족한 자들을 위한 살 길이 있다.

(마 8:16)저물때, 하루가 다 끝난 시간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귀신들린 자들, 병들 자들이 많이 예수님에게도 나왔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부족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슥 14:7).

그의 은혜의 보좌에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셨으므로 그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7월 31일 / 다니엘 6:1-19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1. 정체성을 알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짠 맛과 밝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마 5:13-16).

본문의 다니엘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세상의 부패를 막아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2. 어려움을 알라

세상에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1) 이상한 사람들이 괴롭힌다(단 6:4)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따듯하게 맞아주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피하기보다는 주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부터 미움 받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

2)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괴롭힌다(단 6:5)

말씀을 교묘히 사용하여 괴롭힌다. 예)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서는 조상들에게 왜 제사를 안 드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능통하지 않으면 세상의 멧에 걸리게 된다.

3) 이상한 규칙들로 괴롭힌다(단 6:7)

이 세상에는 모순된 그러나 왕의 도장이 찍힌 것과 같은 힘을 가진 규칙들도 많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본문의 조서와 같이 30일간의 규칙일 뿐이다. 영원을 생각하라.

잠시 살기 위해 영원을 잃어버리지 말라.

3.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1)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일터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단 6:2).

나의 일터나 주위 사람이 나 때문에 유익이 있어야 한다.

2)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한다(단 6:4)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

이는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을 찾기 위함이다.

충성은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수식으로 어려움에 대처하는 답이 된다.

사소한 것조차도 간과하지 않으므로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찾을 수 없던 다니엘이 충성됨의 모델이다.

3) 내면을 건강하게 가꾸어야 한다

다니엘은 내면이 건강한 즉,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단 6:3a)

바벨론의 어떤 사람보다도 마음으로 보는 것이 빨랐고 멀었고 깊어 당해 낼 자가 없었다.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단 6:7)이었다.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기도 없이 살 수 없다. 기도하면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된다.

라틴어에 Laborare est orare, orare est laborare (일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다니엘에게는 일하는 것이 기도였고, 기도가 일이었다.

우리 삶의 이유되신 예수님

채현주 권사



좁은 공간이지만 찬양으로 하나됨



앞에서는 VBS 뒤에서는 양편으로 치과진료와 내과 진료가 함께 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현장



늘 입맛없던 예영이도 한그릇 뚝딱 비운 선교지의 저녁식사



현란한 손놀림으로 200개 샌드위치를 한시간에 뚝딱

1) 부르심

치카 바이러스, 말라리아, 더위, 세계에서 치안불안 1위, 절대 빈곤층이 60%가 넘는 서방에서 3번째 가장 가난한 나라.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온두라스”

그곳에 예배자를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갖 두려움 내려놓고, 부르신 그 곳에서 우릴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7월9일 12명의 우리 선교팀은 김성국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환송을 받으며 온두라스를 향했습니다.

GOD gave me strength and spirit.

Hannah Jeong(고등부)

July 9th was the nerve wracking day in which I travelled to Honduras for the 2016 KAPCQ Mission Trip[s]. I was bursting with anticipation, since it had been my very first mission trip ever. Though we had gone through weeks of training and preparation for the mission, when the day had come for us to depart, I felt very emotionally-unprepared. Feelings of excitement and anxiety made my stomach twist, but I knew well that GOD would guide me throughout the trip. As we arrived in Honduras, we were greeted by the humid heat, Pastor Lee, and other fellow helpers. I could not have asked for any other team, after experiencing how welcoming and kind they were.

From the start of the mission trip, I was worried that I would be socially awkward and unable to make conversation with anyone. However, I was proved wrong. Every single time I met the children, I felt like the luckiest person on the planet. They welcomed us with big hugs and smiles, which made my heart melt. In my



우리 선교팀은 온두라스 북서쪽에 위치한 산파리파에서 14년째 이곳 사람들, 특별히 어린이들을 복음 안에서 양육하며 미래의 지도자로 교육시키시기 위해 온 삶을 드리고 계시는 이동철 선교사님의 사역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온두라스는 전체인구의 14세 미만인 45%가 넘는 아이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천국의 열매가 자라날 수 있도록 겨자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선교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신 선교사님의 고백은 단순히 선교가 아니라 선교사적인 삶을 살 고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lifetime, I had never seen anyone, especially a large group of children, so excited to see me [us]. I was truly blessed by GOD, being able to meet, worship and interact with them. I also thank GOD that he helped me remember the Spanish I studied in school, so that I could understand what the kids were saying to me! But of course, not without the assistance of our helpful translator.

Being able to tour around to different cities in Honduras and meet new children was a very fun experience. I was shocked to see how, in Fuerzas Vivas, the students would have to walk up to the very top of the mountain to get to their school. Whereas in the U.S. we can easily travel to school by bus or car. Therefore, I do not only pray that everyone realizes how grateful they should be. Instead, I pray that we can take joy in the simplest things like the children in Honduras. Also, I pray that GOD will guide me to a new mission next year

From beginning to the end of the mission, GOD gave me strength and spirit. But more than that, he gifted me with a wonderful team. Through the rough rides and tough decisions, our teamwork allowed this to be a very successful mission trip!

2) 팀구성

이번 선교팀은 이명옥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VBS팀(채현주/정주영/이우정/박민아/박지성/이동규/정예영) *의료팀(나인애/김규리/김진수/James Lim) *현지사역팀(헤르손/호수에/신디/홀헤/하비에르) *현지의료팀(Dr. 베를린/전찬혁장로님부부(치과)/인턴두분의 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한 선교였습니다. 매일 새벽기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누며, 그날 선교의 현장에서 만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였고,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사역이 되기를 한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오늘 선교현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나누며, 감사하며, 하나되어 주님께 영광드리는 선교일정이 되도록 기도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3) 사역내용

도착한 다음날(7/10) 주일에는 선교센터 주변에 살고있는 부모님, 어린이 150여명이 함께 선교사님이 직접 지으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미완성인 예배당이었지만(창문도 문도없고 시멘트 바닥에 비가 오면 바람 부는데로 그대로 비가 들어오는 상황), 얼굴도 언어도 다른 우리지만,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Dios bueno es.!!! God is so good.!!!

(7/11~7/12)에는 해발 780미터 높이에 자리한 Fuerzas Vivas 산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틀동안 VBS와 의료사역을 하였습니다. VBS사역은 매일 예배를 먼저 드리고, wonderful story를 통한 말씀사역, skit, 십자가 목걸이/메세지 T-셔츠만들기, 게임, 사진, 풍선아트 등으로 복음을 전하였

그 땅에서도 맘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날을 그리며

남형욱 집사



성심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팀

의료사역 첫날 300명이 몰린 현장

점점 무르익은 스캇팀의 언기

섬에 사는 원주민 유치원교실

습니다. 함께하는 의료선교팀의 섬김은 육신의 고통으로 힘든 이들에게 의술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의료기구를 놓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편한 마음없이 미소로 섬겼던 의료팀. 이 두 사역을 통해 300여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사역은 (7/13)Santa Barbara와 (7/14)San Isidro 라는 해발1100미터에 자리한 교회에서 사역, (7/15)배를타고 1시간 반을 들어가서 까이오치 섬에 사는 원주민과 섬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특별히 이섬에 사는 아이들에게 “퀸즈장로교회” 이름이 새겨진 사연많은(?) 예쁜 가방과 선물을 전해주고 왔는데, 마음이 몽클해져 옵니다. 선교사님께서 요3:16 말씀을 잊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추수하고 거두실 분은 하나님임을 믿기에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고 사는 그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포기가 아닌 희망과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4)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번 온두라스 사역 기간동안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사역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우릴 보내셔서, 새로운 상황을 직면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계획과 준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하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팀을 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팀은 매일 선교현장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구름보다 높은 곳에 허름한 건물, 전깃불도 없는 학교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반갑게 맞아주던 어린 친구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는 잠시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나라와 족속이 구원얻는 그날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였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유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 가득히 주님의 영광 선포되어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마음모아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 또 하나의 변화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적 삶이 되기를, 삶이 예배인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아이들과 함께 드렸던 이 찬양이 매일 매순간 그들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Jesu’s, Cristo eres la razo’n poor la que vivo”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치과사역에 함께한 온두라스의 치대졸업반 신실한 두 청년이 공항까지 배웅나옴

중국의 소수 민족중 하나인 이족 출신의 한 목사님이 운남성에 있는 大凉山에 사는 같은 민족인 이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6개월간 맨발로 산을 오르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을 다 오르고 비로소 준비해간 신을 신고 또 6개월에 걸쳐 내려오면 신발이 다 헤어진다고 합니다. 중국 단기선교 가운데 있었던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이족 출신의 목사님이 본인의 간증을 하시는데 누구라도 할것 없이 참석한 목사님들 모두가 서럽게 우시면서, 또 서로 위로해가며 찬양하고 서로 보듬어 주시고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니 맘이 너무 먹먹하였고 선교가 끝나는 날까지, 아니 미국을 돌아온 지금도 그 현장을 생각하면 또 맘의 한편이 아려웁니다.

중국 선교팀이 방문한 운남성은 민족 전시장이라고 할만큼 많은 소수 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25개 소수민족이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중 8개 소수 민족의 목사님들과 주일학교 교사 60여명이 참석한 목회자 세미나와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는 공안을 피해 안전한 곳에서 3박4일간의 뜻 깊은 세미나를 가졌으며, 그의 네

일 직업 학교와 영어 학교 및 지역 교회 방문의 선교 일정도 별도의 장소에서 7월18일에서 25일까지 10일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17명으로 구성된 이번 중국 선교팀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3분의 전도사님들이 함께 한 가운데, 15살 학생부터 베드로 선교회원까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었으며 팀 미팅도 3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다민족, 다양성의 선교팀이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색깔의 팀이었기에 출발하기전부터 계획대로 잘 할수 있을까 걱정이 많은 가운데 동행하는 큰 아들 녀석이 중국 현장에서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일정을 보고는 아직 어린데 부모와 떨어져서 맡은 일을 잘 해 낼지, 팀에 폐를 끼치지 않을지 이런 저런 걱정을 하며 일정에 맞추어 아들과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걱정을 안고 출발 하였지만 돌아와보니 너무 결실이 큼니다.

아직 어리게만 생각했던 큰 아들 녀석은 몸무게가 10파운드나 빠져서 엄마 걱정을 좀 시켰지만 자기가 맡은 임무 mission을 책임지고 잘해내었고, 선교지에서 돌아와서도 많은 어른들 앞에서 차근 차근 선교에서 느꼈던 점들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





면서 성인식을 선교를 통해서 잘 치르고 온것 같아 감사합니다. 또 모든 팀원들이 민족이, 언어가, 삶의 모습들이 다 달랐지만 떨어진 두 사역지 가운데서도 정말 한 지체 같이 움직였고 서로 걱정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한 가족 같이 지내며 불평 한번 없이 매일 매일 웃으며 힘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것을 보면서 선교를 돌아온 이후 이 선교팀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 다민족 선교의 비전을 개인적으로도 확신을 가지게 되어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중국은 아직 많은 종교적인 탄압이 심하고 소통이 어려운 폐쇄된 나라입니다. 경제부국으로 발돋움하며 많은 것이 개방되어 보이나 막상 중국 내륙안에 들어가서 보니 현실은 google도 되지 않고 gmail도 사용 못하고, 공안이 온다고 밥도 제대로 못먹고 공안이 가고 나서야 식어버린 점심을 먹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폐쇄적인 나라에도 생명을 걸고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저희가 가지 못하는 더 위험한 지역까지 들어가는 중국 현지 목회자들께서는 저희의 짧은 단기선교를 통해서 힘을 얻고 계셨습니다.(저희가 간 운남성 지역에 미국에서 온 이런 규모의 선교팀은 처음이었다고 모두 감사해 하시고 놀라워하셨습니다.)

2016년 여름, 중국 단기 선교는 많은 기쁨과 감사와 눈물이 함께한 감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벌써 그곳의 아이들이, 주일학

교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플러싱에서 맘껏 복음을 길에서 선포하듯 중국 그땅에서도 맘껏 예배 드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찬양할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내년의 선교를 벌써 그려 봅니다.



목회자세미나 소수 민족중 8개 민족에서 3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 -모처에서 3박 4일간 담임목사님과 첸 전도사님이 강의와 예배를 인도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차평화 전도사님이 헬렌(중국어 예배부)의 통역으로 주일학교 교사 30명에게 주일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를 하였음



네일직업학교

며칠간의 짧은 교육에도 바로 취업이 가능할 정도의 실력으로 직업학교 운영교육을 하며 일대일 복음 제시



영어교실

미국에서 온 멋진 청년들에게 반한 꼬마들이 열심히 영어공부와 성경공부를 하였음 강집사님(중국어 예배부)이 팀을 잘 리드해 주셨음



지역교회 방문

여러곳의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준비해간 선교용품들 전달 20개 넘는 이민 가방을 준비해간 중국팀!! 대단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소영 전도사

이번 선교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부딪힌 문제는 언어적 문제와 처음 선교를 가는 팀원들의 구성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무엇보다 해야 되는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걱정부터 시작한 선교였습니다. 리더로서 많은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었는데 주일예배 시간에 김성국 담임목사님을 통하여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맞아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지”란 생각이 드니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어예배부에 계신 분들도 동역자로 많이 조인하게 되어, “아!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란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팀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12명이라는 동역자들을 모아주셨고 처음 우려와는 달리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사역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단기선교팀원이 아니라면 만날 수 없었던 동역자들을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 하에 살아온 시간과 문화와 성격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으로 뭉쳤기에 하나됨이 더욱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 기대와 설렘 그리고 두려움



을 안고 도착한 선교지에서 언어 때문에 조바심 내었던 우리권 사님들조차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에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이(나바호족)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성권 전도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경청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 우리 팀이 앞에서 부르는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또한 선교기간에 4명씩 조를 지어 집집마다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집들을 찾아가니 먼저 우리를 반기는 것은 꼬리치며 다가오는 강아지들이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나바호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를 반갑게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해 주셔서 시원한 가운데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들어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곳에 계신 나바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네 족속들이 믿는 독수리도 숭배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은 겨우 1%쯤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갸호호 방문하며 기도했던 것은 전의 우리나라가 아무런 삶의 희망도 목적도 없이 죄악으로 범벅되고 낙후되었던 시절에 예수님 이름 하나로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인하여 지금의 우리가 있듯이 이번 단기선교로 거쳐 간 발자취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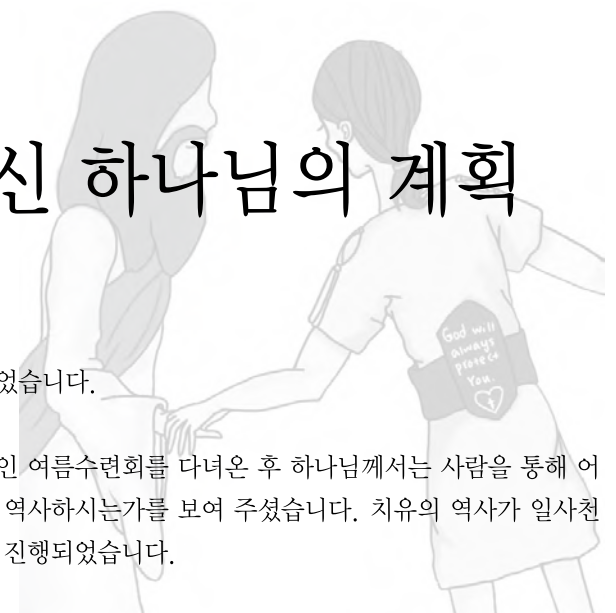
막 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님과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로 간증을 하였고 선교를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팀원의 간증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이번 선교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한사람 개개인의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환경, 내가 가진 달란트, 감당 못할 것 같은 많은 일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라고 내딛었던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보신 것입니다.

작은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서 곱게만 자란 장미가 이제는 내실 안에서만 향기를 발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장미향보다 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의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통해 큰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합니다.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

정주영 집사



브리스가 선교회 정주영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는 것, 또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작년 한해를 출발할 때만 해도 저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노트에 적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유년부 반주자와 임마누엘 찬양대원, 그리고 집사로 임명받은 후에 저는 최선을 다해 일하리라 마음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한달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지킬 수 없는 다짐이 되었습니다.

간간이 허리에 통증이 있었던 저는 1월초에 허리를 빼끗하면서 그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MRI 결과를 본 담당의사의 소견은 단순한 디스크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났지만 뚜렷한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이유도 모른채 6개월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마치 매일 아이를 출산하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의 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고, 쉬과 예배가 있는 2015년도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괜히 저의 불편한 모습으로,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갈등하는 제게 남편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며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진통제를 잔뜩 챙겨두고 수련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교우들의 중보기도는 엄청난 용기와 힘을 안겨 주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의 현

장이었습니다.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다녀온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 주셨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통증 전문의를 새로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걷는 모습만 보고도 허리가 아닌 등과 목의 MRI를 다시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통증의 원인은 척추증양이었습니다.

중추신경은 이미 90% 가까이 종양에 눌려 있었고, 의사는 그동안 어떻게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느냐며 놀라워 했습니다. MRI 결과가 나오자마자 척수수술 전문의를 소개받았고, 그 전문의가 마침 수술을 집도하고 있던 St. Francis Hospital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의사의 응급실 진료를 받고 바로 입원수속까지 마쳤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발견한 후, 권위있는 수술전문의를 소개받고, 그가 있는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세시간 안팎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밀검사를 마치고 입원한 지 5일 만에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의 통증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극한 고통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고, 예배의 자리는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주님 앞

에 고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히 강한 마음으로 계획한다 해도 주님께서 건강과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2016년도 제직수련회를 통해 주신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말씀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들으며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습관적으로 행동했는지를 회개했습니다. 도전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희생이 따르더라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무렵 남편은 보내는 선교를 하겠으니 저에게 가는 선교를 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이렇게 아픈데 무슨 선교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선교를 가는것은 기정 사실이 되었습니다. 여러 교우들이 ‘할수 있다’ 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얼마전, 전 혼두라스 단기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심도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주기 위해 떠나는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놀라웠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해맑기만 한 아이들의 미소를 바라보며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회복 되었고 아직도 회복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의사는 종양으로 눌렀던 신경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늘 감사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갈림길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9년 5개월 19일. 참으로 짧은 생애를 살았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게다가 선교사로 지냈던 기간은 4년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애가 그토록 큰 영향력을 지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일기에는 대체 어떤 힘이 있기에 각 세기를 대표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걸까요?

The Life and Diary of David Brainerd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조나단 에드워즈 편집/원광연 옮김
출판사: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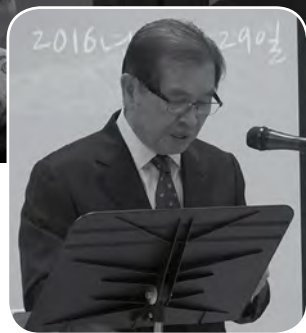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1718년부터 1947년 10월 그의 죽음에 이르는 시간)의 일기를 브레이너드 자신의 편집과 일부 조나단 에드워즈가 편집하여 브레이너드 사후 2년 후에 출판된 것이다.

브레이너드는 그의 일기 속에 불완전한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며 그런 자신이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으로 빚어지는 깊은 영성을 꾸밈없이 서술하였다. 이 책은 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를 본받아 기도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주고 그가 선교 사업에 산제사로 바쳐진 그의 행적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필수적인 요소를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앤드류 머리는 이 책을 “당신이 하나님의 종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당신을 부르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읽고, 쉬었다가 다시 읽으라” 고 라며 필독을 권하고 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갈등하며, 기도 속에서 내면의 소리에 민감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의 일기를 읽고 묵상하며 이 한여름 밤에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과 사랑의 일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멋진 일이다.

목표를 향한 위대한 꿈 - Great Dreamers!



허경화 장로

Great Dreamers!

위대한 꿈을 꾸는 70, 80대가 함께 모인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설립 기념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봅시다.

- 1)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라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 2) 생명샘이 솟아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 3)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 하도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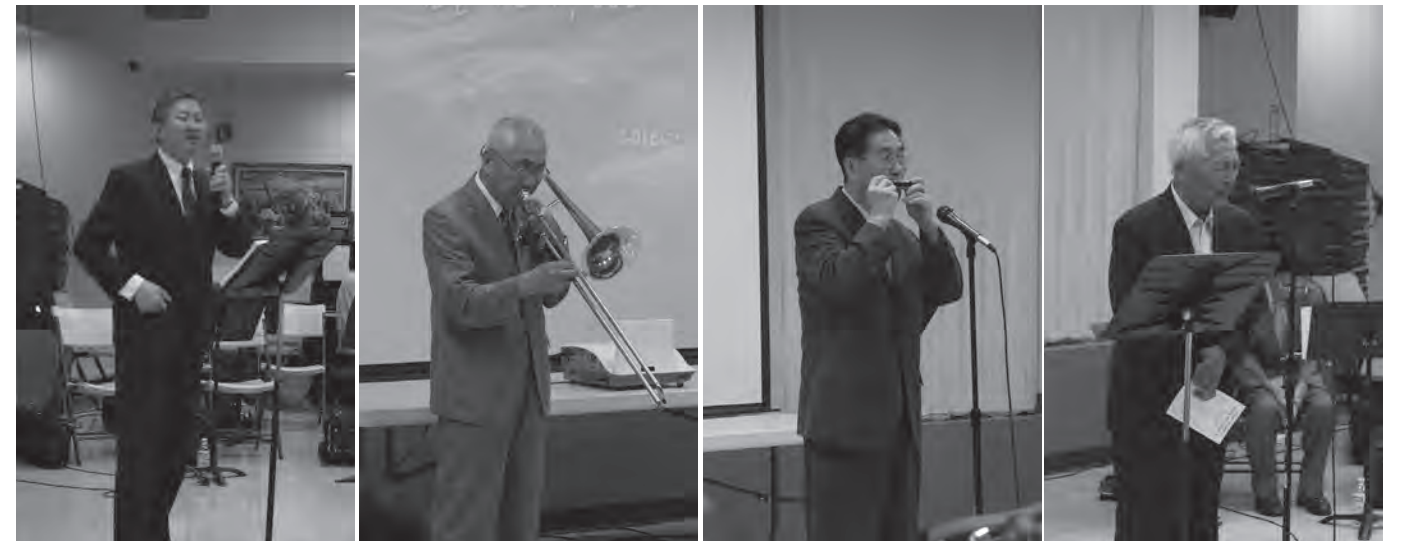
미국 이민 1주일 후, 1975년 2월 23일 주일, 교회 설립 1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한 나에게 그 날의 예배는 평생에 잊지 못

할 감격스러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41년간 고달픈 이민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리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사랑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막연한 꿈을 가지고 이민 가방 한 두 개를 끌고 케네디 공항에 내린 나는 다음 주일 예배 드릴 교회를 찾는 것이 첫 과제였는데,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은 이미 퀸즈장로교회와 장영춘목사님을 예비하여 주었습니다. 힘들고 고달픈 이민생활에서 우리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와 성도들이 있었기에 주일이면 함께 모여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교회는 우리의 안식처였고, 피난처였고, 포근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 40대 초반의 장영춘 목사님은 기도하시며 정성껏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간에 황폐해진 이민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주었습니다.

교회의 표어 -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일 저녁과 수요일 예배 때는 창세기, 로마서, 요한계시록을 차례로 공부하며 성경을 정독하고 암송하고 생활에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도록 힘쓰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첫째, 우리 예배당을 가지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둘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셋째 우리 교회의 힘을 키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교회 건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할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맨 먼저 1977년 봄에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건축 기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여 교회 건축을 위한 성도들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1978년 6월에 찬양대가 건축 기금 모금을 위한 메시아 전곡 연주회를 줄리아드 음대 학생들과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도움으로 맨하튼 음대에서 공연하여 뉴욕의 모든 교회와 교포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퀸즈장로교회의 찬양대가 크게 발전하고 향상되는 기쁨을 만 들었습니다.

드디어, 1981년 8월에 교회 건축 기공예배를 드리고 1982년 11월에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온 성도들이 감격의 눈물로 예배하며,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송을 드린 것은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집에는 생활 가구도 제대로 없으면서도 건축 현금을 드리기 위하여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껌돈을 마련하여, 우리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는 기쁨은 말로 형언키 어려운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어 하나님께 드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사함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빈손으로 이 땅을 밟은 한국의 청교도 이민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꿈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그 귀한 꿈이 이루어져 1991년에 교육관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5층의 교육관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일에 교육하는 주일학교만이 아니라, 일반학교까지 개교하는 꿈을 가졌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앙 교육의 기초가 되는 아가페 유치원을 설립하여 어린 새싹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교육을 시작토록 하였고, 뒤이어 대학과정과 목회학 선교학과 과정의 신학교를 설립하여 주의 종들을 키우는 귀하고 복된 교육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도 더 큰 일을 명령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이 선으로 물러났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을 본받아, 교회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군사 된 사명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김성국 목사님을 새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란 표어를 붙들고 열방을 향하여, 다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힘찬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훈련과 영성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자세를 바로 세우고, 언제나 어디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발걸음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심히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큰 나무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듯이, 우리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뉴욕의 모든 종족이 이 제단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죄악이 가득한 뉴욕이 복음화 되고 온 미국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일을 우리 후손들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믿음의 행진에 함께 하였다가 먼저 가신 사랑하는 교우들,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그 사랑과 봉사와 헌신이 헛되지 않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염원하며 70, 80대 Great Dreamers의 소망을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들은 한국 중국 인도를 떠나 미국에 이민자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능력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라. 그것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잠깐의 성공,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꿈은 예수 밖에 없다.

G O S P E L O N M A I N S T R E E T



김성국 목사 간절한 외침... 행인 시선 모아

김도현 목사 / 퀸즈장로교회 영어예배
마지막으로 '가서 전하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으로 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치에 전 전도사 / 퀸즈장로교회 한국어 예배 인도
우리는 많은 중국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권장 '함께 이뤄가는 다민족 예수 공동체'

예수는 이 플러싱을 바꿀 것이다. 예수만이 미국을 바꿀 것이다. 미국은 신앙을 찾아 온 자들이 세운 나라로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예수께 손들고 나오면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신다. 인생의 환란 죄악 유혹 죽음 모든 것에서 피할 길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신다. 이민자의 어려움을 아신다.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다. 예수님께 축복이 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줄 믿는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말씀 정리]

쉬움



주님과 함께 한 병상에서의 쉬

황은애 권사

저는 1979년 2월에 뉴욕에 도착해 그 주부터 에스터 선교회로 시작하여 성경공부나 전도폭발 등의 훈련도 받고 교사와 찬양대원, 권사의 직분도 받아 기쁨으로 섬기며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쁘고 힘든 젊은 시절에는 잘 봉사하다가도 병원에 입원해서 라도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건강을 주셔서 성인병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기대하던 성직순례를 감사하게 잘 다녀온 후에 다리가 아파 뉴욕병원에서 퇴행성관절염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문득 건강만을 믿고 지난 65년 이상 다리를 혹사시켰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노인권사님들을 위로하려 방문했고, 그레이스 선교 무용팀의 일원으로 위문공연 차 갔던 념싱홈에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기위해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병상을 찾아와 위로해 주는 많은 성도들을 보고 양로원 직원이 저에게 뮤비 스타라도 되느냐 묻기에 뮤비 스타보다 높은 신분의 저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친구이시며 이 많은 분들도 예수님의 친구들이시기 때문에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사순절을 위해 매일 목사님의 설교를 카톡으로 보내주는 사랑의 손길이 있어 예전과 같이 병상에서도 변함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입니다. 새벽예배를 마치고 몇몇 성도와 성경읽기를 하며 보통 일년에 2번 통독을 하지만 병상에 있던 3주간에 주님 말씀을 대하며 어느 때보다도 달콤한 주님의 말씀에 빠져 묵상과 감동으로 꿈같이 일독을 하였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머리에서부터 맑은 기운이 내 온몸을 감싸며 평안한 마음이 되어 아픈 다리는 물론 모든 몸에 생기가 퍼지며 다시 젊어져 에스터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병상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술한 다리가 많이 좋아지고 무용팀에도 다시 조인하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설 수 있는 보너스도 주시고 건강한 무릎도 다시 주셔서 다시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올해는 성경 다독의 해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퇴행성관절염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고후 1:5)’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주님의 위로와 사랑 때문에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쉬게 한 행복한 병상이었습니다.



여행은 쉬의 기회이자 교육의 기회

최윤희 권사

교회의 권사로, 지도원으로, 아내와 두 딸들의 어머니로서, 뉴욕시공립학교 JHS 189Q 중학교의 Parent Coordinator (학부모조정관)으로 일하고, 뉴욕한인학부모협회장으로, 교회, 가정, 일, 봉사 활동의 균형을 이루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메이크업으로 꽃단장하고 새벽기도에 와서 모든 하루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미리 보고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 먹으면서, 1983년 미국에 온후 한국말을 잊어 버릴까봐 10년전부터 구독하는 한국신문들을 독파 한 후에 8시에 학교로 출근한다.

전화 통화의 거의 90%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타이트한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 하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여행을 간다. 여행은 세계의 어느곳에 가든지 그 나라의 환경과 사람들과 언어와 식습관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독특한 면을 배울수 있는 교육의 기회이고, 사회생활에서 여러 나라를 다닌 경험이 각국 문화의 사람들과 교류 할 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큰 잇점이 있다.

지난 7월 초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나의 7형제가 살고 있는 한국과, 그동안 궁금했던 중국의 무역의 중심지인, 광저우와 심천을 다녀 왔다. 한국은 갈때마다 변하는데, 새로 유행하는 언어들과 새로 생긴 샵센터와 스토어들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들과 새로운 패션들이 눈에 띄는데 단연 여성들에게는 무릎 밑에 까지 내려오는 통이 아주 넓은 바지들이 눈에 들어 온다. 원래는 한국에 가면 친구와 같이 중국여행을 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고, 여동생들도 못간다고 해서, 웹사이트를 검색 해 보니 그동안 적립된 3만 마일의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4만8천원만 내고 중국 광저우를 다녀 올수 있었다. 광저우는 여성과 남성 패션의 도매상인 짚시와, 핸드백을 취급하는 빠위인시장 등이 있고 그외에도 선글라스, 모자, 스카프를 취급하는 여러 시장이 위치 해 있다. 컴퓨터 부품의 중국의 중심지이며 광저우에서 2시간 거리인 심천에도 패션 도매시장이 많이 있어서 온김에 둘러 봤다.

나는 외국을 여행할 때 주로 저렴한 민박을 이용한다. 우선 민박은 한국인들이 운영하므로 나라에 따라서 아침밥은 물론이고, 저녁도 제공하는곳도 있고 현지의 시차적응도 한국밥을 먹으면 컨디션도 최상이고, 민박집 사장님에게 현지의 사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광저우에서는 하루에 200



위안, 달러로는 40불인데 깨끗한 침대와 식사가 제공되는 곳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예배드리는 소리를 듣고 사장님이 식사기도를 부탁해서 얼마전 발목의 골절상을 입고 절뚝거리는 사장님을 위하여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예수님으로 기적같이 완쾌를 주십사고 기도 한 후에, 밥 반찬이 두개나 더 늘었다.

통역과 가이드를 맡은 연변이 고향인 헤란씨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집안이 불교를 믿는다고 한다. 불교인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7살 짜리 아들도, 성경에는 노예로 팔려와도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조선족교회에 나가 보겠다고 한다.

어렸을 때의 부모와의 여행은 영원한 추억이며 자녀들이 꿈을 키우는 좋은 기회이다. 뉴욕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IDNYC(뉴욕신분증)이 있으면 50여개의 박물관과 여러 기관을 무료로 1년간 이용 할 수 있다.

여행을 돈 많이 들여야 가는 럭셔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삶과 일의 연장이며 상상력과 영향력을 넓히는 교육의 기회로 삼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숙한 집을 떠나 당일이던 며칠이건,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여행전 보다, 더욱 발전하고 성장한 나 자신을 경험을 하게 된다.

여행 가기 전에 매일 기도로 준비하면 가는 곳곳마다 우리보다 먼저 가서 장막 칠곳을 준비하시는 여호와이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천군천사와 동행을 경험하게 되고, 휴식과 충전된 몸과 마음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바른 쉼

배인구 전도사

많은 학자들은 21세기는 성실만 있어서는 절대 살아 남을 수 없다고 말한다. 물론 21세기도 근면 성실은 필수불가결한 덕목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며 창의력과 재미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쉼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쉼은 중요하다.

창의력과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쉼이 일한 후에 기대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일하지 않고 쉼만을 추구함에 있다는 것이다. 문명과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언제부턴가 현대인에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노느냐, 어떻게 쉬느냐로 바뀌어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더불어 쉼의 개념이 ‘휴식 (recreation)’에서 ‘여가 (leisure)’로 바뀌면서 모든 삶이 여가생활을 지향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한다.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러한 영향을 받아 우리도 모르게 지향하는 삶이 말씀이 아닌, 세상이 지향하는 삶에 맞춰지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게 느껴짐을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란 무엇일까? 크게 영과 육의 쉼으로 나눌수 있다.

첫째는 영원한 쉼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 7-8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의 말처럼 그가 지향한 것은 그의 삶이 끝나는 날 주어진 쉼 (안식)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대하는 궁극적인 쉼이기도하다.

구약의 안식일과 관련하여 안식 혹은 쉼을 나타낼 때는 히 4:9-10의 “그러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는 말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6일동안 창조의 역사를 마친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쉬셨음 같이 모든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후에야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고할 일은 바울이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수고가 있는 후에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망인 것이다.

둘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육의 쉼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쉬고 싶으셨던 때가 있었음을 마가복음 6:30-44에서 알려 주고 있다.

31절에 보면 “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물려오기에 그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 때 지친 제자들을 보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제자들은 쫓기는 삶에서 좀 쉬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배를 몰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쉬게 가만 두지 않았다. (33절)

제자들은 모처럼 쉼을 가지려 했지만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일 때문에 거절당하는 모습을 본다. 본문에서 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비록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 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즉 사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써 먼저 사명 감당하고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을 다 마치고 쉬는 것은 배고픈 후에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기쁨과 감사가 있다.

우리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려 가나안을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고 그곳에서 아내감이 될 만한 집안으로 들어 간다. 먼 여정에 대단히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말랐을 것이다. 그러나 먹을 것과 물을 주는 라반에게 좋은 말한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 하겠나이다” (창 24:33)

좋은 용건을 말하고 아내감을 획득받고 그리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하고 쉬어야 한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예수님도 쉬셨고,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은 문제지만, 일하고 쉬는 것은 정상이다.

우리는 성경적인 쉼을 가지고 있는가?
쉬기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명 감당하며 무엇을 기대하고 지향하고 있는가?

부디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진정한 쉼의 기쁨을 맛보아 살며 주님께서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다 듣는 퀸즈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한다.

주님 안에서의 마음의 평강 ‘쉼’

한원희 집사, 알리지 면역학 전문의

사람들이 보통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잠시 심신이 지쳐있음을 회복하는 것을 ‘쉼’ 또는 ‘휴식’ 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몸과 마음의 건강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휴가(Vacation)를 가는데 이는 Vacancy(비움)과 유관하다고 봅니다.

빡빡이 채워져 있는 생각들과 빈틈없이 짜여있는 일의 연속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다시 현실로 복구하였을 때 누구나 활기 찬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행복감과 일의 성취감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마태복음 11:28-29)” 이 성경구절에서도 ‘쉼’ 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이 평온해 짐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의학적 측면에서 ‘쉼’ 이란 무엇일까? 알리지와 면역학을 전공한 전문의로서 ‘쉼’ 이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친 우리의 심신을 회복하고, 몸 안의 기력을 증강시킴으로 우리의 면역 체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쉼의 방법으로는 운동이나 요가, 등산이나 캠핑 등을 통해서 몸을 단련하는 방법이 있고, 음악이나 미술 감상, 책을



읽거나 명상에 잠기여 몸과 마음을 이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친구나 친지와와 행복한 잡담을 통해서도 몸 안의 엔돌핀(Endogenous Morphine)이나 도파민(Dopamine) 같은 신경 전달 물질(Neurotransmitter)들을 활발히 분비시켜 그 결과 세포에 탄력이 증가되고, 우리 몸이 세균의 염증이나 감염에서 저항력을 키워 스스로 보호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쉼’ 의 형태들을 통해서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여 우리의 건강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마음의 평강 ‘쉼’ 을 찾아 항상 행복한 일상을 유지함이 제일 좋은 쉼이라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감을 성취함으로 건강한 영육을 이뤘다가시길 기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심을 주기 위하여...

김재형 목사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심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주위의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알고자 하는 마음은 그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에 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죄의 영향력은 이러한 은사들을 왜곡되게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이해할 수 있으면, 다 파악한다면, 이제 정말 평안하고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알 때까지, 다 파악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파악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신비를 다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앞일도 정확하게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다 알고 있으니 걱정없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허다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진정한 평안과 심은 아는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서 오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알 수도 없지만, 다 예측할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만물을 영광 가운데 선하게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 뿐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하여 보내 주신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비로서 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책임 지시기 때문입니다.

진로도 알지 못하고 장래일도 여전히 알지 못할 때에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태초 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분의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아이들의 쉴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학교 점수에 허덕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경력과 보수에 허덕이며 불안해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반석 위에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공부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언제나 평안하고 심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현실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다 아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는 다 할 수 있고 다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일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인내하는 부모입니다. 실수하고 넘어 질 때 믿음으로 꺾끗이 다시 일어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볼 때에 진정한 심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쉬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있습니다.

‘심’을 갖게하는 작은 여행

Cloisters Museum & Gardens

사람들마다 휴식을 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방콕(방에 콕 박힌 듯 쉬는 것)으로 텔레비전과 누가 이기는지 씨름하여 보는 휴식, 가까운 벗과 아름다운 대화로 위로 하며 위로 받는 휴식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을 이탈하여 멀리 여행을 떠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이다. 집에서 에어컨 켜고 수박 한입 베어 물면 아! 이것이 ‘심’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만 그러나 용기를 내어 잠시 밖으로 뛰쳐나갈 볼까요?

오늘 소개하고픈 곳은 뉴욕 맨하탄의 북쪽에 위치한 ‘Cloisters Museum & Gardens’ 입니다. 클로이스터 박물관은 박물관 안에 나무나 식물을 심어놓은 조그마한 정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든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가지고 있는데요. 건물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안뜰을 둘러서 세워진 성당으로 그 분위기가 유럽 시대의 수도원의 건축 양식을 모방하여 디자인되어 이국적인 향취를 물씬 풍겨줍니다.

지하철을 내려 작은 공원을 지나 10-15분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걸어가는 길부터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름에는 푸르른 잎으로 단장한 길가의 나무들이 강물과 어울려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겨울은 옷벗은 나무들의 앙상한 가지 사이로 강물의 흐름이 더 잘 보이므로 다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길입니다. 허드슨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뉴저지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길가의 아름다움에 젖어 걷다보면 어느새 박물관에 도착. 무거운 느낌을 주는 문이 분위기를 압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도 돌로 만들어진 좁은 복도를 지날 때는 오래된 옛 성을 들어가는 듯한 약간의 긴장된 느낌을 주지만 금세 여러가지 색깔의 위사를 사용하여 손으로 짠 많은 화려한 작품들에게 눈길을 빼앗기고 맴돕니다. 클로이스터 박물관에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등 중세 유럽의 서양 중세 미술 및 건축 관련 자

료와 유물이기 때문에 카톨릭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으며 몇 백년전에 만들어진 성경책, 성배 등의 유물, 나귀를 타신 예수님 조각상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배당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모형이 높이 공중에 걸려있는데 저러오는 마음을 가눌 수 없어 한동안 자리에서 머물며 떠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니콘, 마리아가 앉고 있는 아기 예수님, 섬세한 조각 문항등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박물관 중앙에 있는 아치형의 기둥들이 둘러싸여진 정원은 운치를 더해주는 아름다운 곳으로 유럽의 어느 길을 거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마음가는 곳 한 곳에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잡고 앉아 작은 분수와 나무들을 보면 마음에 평안을 느끼게 되며 이런것이 ‘심’ 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한적한 공원 클로이스터 가든에서 멀리 눈을 들어 바라보는 허드슨강과 강 너머의 풍경들... 항상 바쁘고 복잡한 일상에서 마음까지 좁아져가는 듯 할 때,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을 때 전혀 다른 분위기의 클로이스터 박물관을 가 보세요.

99 Margaret Corbin Dr, New York, NY 10040

<http://www.metmuseum.org/>

+1 212-923-3700

Open Seven Days a Week

March-October: 10 am-5:15 pm

May 27-September 2, 2016: 금요일만 7:30 pm까지

November-February: 10 am-4:45 pm

[편집부 문인숙 권사]



Yes, I love you Jesus
deep down in my heart



“한여름 밤을 수놓은 사랑과 감동의 선율”

우리의 삶 주변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과 슬픔이 있고 또한 넘치는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통이나 슬픔은 함께 나누면 가볍고 쉬워지며, 감사와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크신 사랑을 고통 받는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전하고자 10 여 년 전에 암 투병을 하였던 본 교회 심의례 전도사님께서 암환자들을 위한 새생명선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암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심방도 하고 매월 모임을 가지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기도와 사랑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한 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돕기 위

해 2007년에 처음 사랑의 음악회를 시작하여 올해로 제10회를 맞은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더욱 세련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7월 30일 저녁 7시 30분에 본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개회 기도로 시작하여 외부에서 초대된 솔리스트들(테너 김충구, 메조소프라노 박영경, 바리톤 이요한, 소프라노 최경순)의 아름답고 멋진 오페라 아리아를 들으며 꿈을 꾸는 듯 황홀했고, 강렬하고도 은은한 관현악 연주(오보에 이정석, 첼로 에스더 유)와 솔리스트들이 다 함께한 사중창과 합창은 가히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감동적인 무대였으며 피아노(김해은)연주도 일품이었습니다.



본교회 어린이합창단 G2G와 여성합창단 Blessing Choir의 열창으로 친근감과 기쁨을 더해 주었으며, 어린이들에게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과 사랑을 느끼게 한 음악회였습니다.

특별순서로 금년이 4번째인 장학금 전달 시간에는 암 투병을 하다 천국에 가신 분의 자녀와 어머니를 잃고 할머니와 사는 학생에게 전달 되었습니다.

이 음악회와 모든 사역들을 위해 많은 분들이 사랑과 물질로 후원해 주셨으며, 특히 유명한 음악인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연주를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니 더욱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새생명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전도사님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의 사역위에도 주님의 채우시고 돌보시는 기적과 사랑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이 짧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연약하고 고통 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면 이 어둡고 거친 세상도 밝아지고, 고달픈 나그네의 삶도 더욱 아름답고 따스해지리라 믿습니다.

[편집부 정혜경 권사]





“Wisdom cries aloud in the street, in the markets she raises her voice; at the head of the noisy streets she cries out; at the entrance of the city gates she speaks...” (Proverbs 1:20-21)

This proverb was fulfilled on Sunday, July 31, 2016. It was a momentous day in the history of KAPCQ and of our Flushing community. Despite the dire weather forecast for thunder and rain, God ordained this event to take place. Starting at 5:30 p.m., at the apex of Main Street and Kissena Avenue, the two most central and populated streets in Flushing, we were able to shine the light of Jesus Christ to our community. The Queens Public Library at Flushing served as the entrance of the city

Gospel on Main Street: Out in the Desert Place

By Deacon Jenny Whang Photos by Deacon Jong Chul Lee and Hayro Garciga



gates for our church-wide evangelism campaign to the numerous denizens of bustling Downtown Flushing. Through the concerted efforts of KAPCQ's Gloria Choir, Grace Dance Troupe, Korean Ministry (KM), English Ministry (QPEM), Chinese Ministry and our new Russian Ministry (RM), our church came together to “fish for the least and the lost” in our local community.

“A voice cries: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desert a highway for our God.’” (Isaiah 40:3)

God granted our church this blessed honor and opportunity to raise our voices, first with the music of Heaven through Gloria Choir and then with the impassioned cries of our church pastors to all of the lost souls out there for Christ in Chines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as well as with the calls of our evangelists inviting and imploring the people to join us. God used our cries to draw crowds from all walks of life and from all nationalities, race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to an eternal relationship with Him in Christ alone.

Initially, the church met obstacles in obtaining the proper permits for this outreach event. However, by God's will and grace, all the right authorities were contacted and permission was granted to utilize this central location.



As light drizzle fell from the heavens, Gloria Choir members, dressed in matching green tops, opened up with a beautiful hymn, drawing curious pedestrians to stop and listen. Almost simultaneously, the rains suddenly halted. It is definitely not unlike God to reveal Himself as the Author of life and the Almighty Creator who also holds up the rains.

At this time, evangelists from QPEM, KM, CM and RM sprang into action to approach the crowds—whether passing by or standing still—to invite them to the performance, to our church and to salvation in Jesus our Lord. This was done naturally, yet strategically, so that as many as possible could be drawn in. Gospel tracts and church bulletins in four different languages, and gift tissue packets were passionately disseminated to all. If the opportunity arose, the witnesses shared the Gospel message and personal testimonies to all those willing to listen.

After the opening hymns, the six female members of KAPCQ's Grace Dance Troupe came out dressed in matching colorful hanboks and performed traditional Korean dance numbers to draw further attention from the crowds. This provided our witnesses more opportunities to “fish” for God's beloved people and to bring them from this world into His Kingdom and to share in His wedding banquet.

A heart-rending message was then proclaimed to the crowd by Pastor Chen in Chinese Mandarin, declaring Jesus Christ to be God's precious gift to man for salva-

tion. Passersby were riveted. His voice amplified through Main Street Flushing like it was modern-day Rome. The sermon was reminiscent of powerful street evangelism efforts such as those of Moody, Spurgeon, and John the Baptist.

After a few more songs, Pastor Peter addressed the crowds in English with a powerful message of the Greatest Judge, who is loving and doesn't want to punish us, but who is also just and must punish our sins. He proclaimed that this great tension was resolved for good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who is offered to us as a free gift. The crowds soaked it all in and were moved by the Story of God's love in Christ.

At the closing of the event, with impeccable timing, God once again opened up the heavens and let down the rains that served as a natural acoustic to Gloria Choir's finale of the Lord's Prayer to a moving crescendo.

Senior Pastor Kim concluded the event with a final message of hope in what often seem like a hopeless and despondent situations; hope like the rains that nourish the dry and barren desert. Under open umbrellas, the crowds received Pastor Kim's powerful prayer for Flushing and its people. And we know God hears us and will fulfill His mighty mission for this great city.

As immeasurable as the raindrops are, may God's blessings pour forth like a flood of living water over Flushing, His Bride the Church, and His People from all nations. Soli Deo gloria.



我在这里，你差遣我!

我们中国短宣队一行17人，带着恩主的嘱托，在金星局主任牧师向多国、多民传扬福音异像的带领下，风尘仆仆远赴云南，马不停蹄地开始了牧者装备、主日学老师培训，和儿童英语教授及职业培训等，为期10天的宣教事工。之后，短宣队探访了昆明市内的三个家庭教会；紧接着，又驱车单程6个多小时的盘山公路，深入到了彝族和傣族的三个农村教会，和当地的两个信徒家庭。昆明市的三个家庭教会，人数分别为20多人、30多人和将近百人，无论人数多少，他们都有着从神而来传福音和宣教的异像，这实在是奇妙的作为；偏远少数民族地区的三个农村教会，尽管环境恶劣、条件艰苦，但渴慕神的话、爱主的心丝毫不减，使我深受感动也倍受激励。当看到在几乎与世隔绝的穷乡僻壤，矗立着上百年的教堂并十字架时，我仿佛看见恩主在一个多世纪前，就差派祂各路的仆人使女，将福音的种子，撒遍了中国的每一个角落...给我印象最深刻的，是有几个少数民族，如景颇族，信主人数已达90%以上；中缅边境的少数民族难民，尽管缺衣少食，几乎一无所有，但所到之处，首先建立起来的却是简陋的教堂；76岁的乡村牧者张牧师，为主做工已达50年之久，还继续步行穿梭在各个农村教会之间，

坚固信徒；当他用神的话语”压伤的芦苇他不折断，将残的灯火他不吹灭”来与信徒共勉时，我们无不为之动容。亲耳所闻、亲眼所见让我思绪万千，感恩的泪不住的流，一是感谢恩主眷顾14亿中国同胞，只因那里有着众多属于祂的人，无论山高水远，都要把他们找寻回来；再是感谢金星局主任牧师，带领教会韩文部、英文部的弟兄姊妹，持守圣灵所赐合而为一的心，顺从圣灵的引导，克服重重困难，把神的话语和祂的爱，再一次播撒到那些久旱的心田。我不知道这次宣教经历，会对我的人生产生什么样的影响，但有一件事我知道，那就是我已经开始了明年宣教的筹划...我已听见恩主呼召，我已看见中国的需要，主啊，我在这里，你差遣我!



姜吉琼执事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내소서!

Ji Qiong Jiang

중국 단기선교 팀 일행 17명은 주님께서 김성국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다민족을 향한 선교 비전과 주님의 주신 부탁을 따라 중국 윈남성에 갔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여 쉼 사이도 없이 목자훈련, 주일학교 선생님교육, 어린이 영어 교육과 직업 훈련 등 10일 동안의 선교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선교팀은 쑤밍 시에 있는 세 가정교회와 6 시간 반 산도로로 이동하여 이족과 다이족이 살고 있는 마을의 세 가정교회와 평신도 두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쑤밍에 세 가정교회의 성도는 각각 20명, 30명, 백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선교 비전을 갖고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소수 민족 지역의 세 교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마음은 충만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있는 백년 된 교회와 십자가를 보면서, 한 세기 전에 주님께서 많은 종을 보내어 귀한 복음의 씨를 이 중국 땅 곳곳마다 이미 심으셨음을 알았습니다.

인상 깊은 것은 소수 민족 중에 경떡족은 예수님 믿는 성도가 90%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지대 살고

있는 난민들은 비록 물자가 많이 부족하지만 가는 곳마다 우선 교회를 지었습니다. 76세 시골 목사 장목사님은 50년 넘게 주님의 일을 하시고, 또 걸어서 시골에 있는 많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사야 42:3에 “상한 강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를 실천하시며 성도들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많은 힘을 주시며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들으니 감사하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중국 14억 동포를 지켜 주셨고 또 주의 사람들을 구원 하셨습니다.

한국어 예배, 영어 예배 형제자매들 이끌어 가시며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시는 김성국 목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한 경험이 저의 인생에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에 말씀과 사랑으로 저의 마음이 충만하여 졌습니다. 저는 중국에 필요한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며 내년도 선교 계획을 지금 부터 시작하였습니다.



CLASIC CAMP

Ainos의 여름은 뜨겁다!

이정훈 집사

Ainos (헬라어로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는 퀸즈 장로교회 특별활동 위원회 소속의,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를 아우르는 Youth Orchestra의 이름입니다. 현재 중등부부터 고등부 학생들이 소속된 Ainos 1기팀과 함께 유년부 및 초등부까지를 포함하는 Ainos 2기가 활동 중입니다.

현재 특별활동 위원회 내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Ainos Youth Orchestra를 포함, 총 4개의 부서가 소속되어 각 소속 단원들을 교육 및 훈련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코러스가 중심이 되는 G2G (“Glory to God”의 줄임말입니다), 율동과 Body Worship이 중심이 되는 하랑예찬 (“하나님 사랑, 예수님 찬양”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퀸즈 장로교회 어린이들의 영성 교육과 fellowship을 위한 AWANA와 더불어 오늘 소개해 드리는 Ainos Youth Orchestra까지, 특별활동 위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unique한 개성 및 취미, 특기에 걸 맞는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의 option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lassic 음악은 어찌 보면 요즈음 청소년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느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일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양하고 동적이며 Visual을 자극하는 요즈음의 트렌드와는 사뭇 다르기에 이와 같은 Classic 음악을 교육받고 연습하는 우리 단원들이 신기하기도, 또한 기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Classic 음악의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만큼 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 단원들 모두 땀방울을 흘리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더 나은 실력 향상을 위해 연습 및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부터 26일의 총 4일에 걸쳐 이와 같은 Classic 음악에 관한 Intensive한 교육과 훈련이 함께하는 ‘2016년 Summer Music Camp’가 개최됩니다. 특별히 이번 첫 번째 Music Camp는 이와 같은 청소년 Music Camp에 관한 풍부



한 경험과 Know-how를 보유한 New York Laureate Youth Orchestra가 우리 퀸즈장로교회의 Ainos Youth Orchestra와 함께합니다. 본 NYLO (New York Laureate Orchestra의 줄임말입니다)는 뉴욕 및 인근지역의 청소년 80여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Youth Orchestra로 지난 10여년간 수많은 공연 및 Summer Camp 개최를 통해 상당한 실력과 전통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 단체와의 공동 개최를 통해 첫째, Community Outreach의 목적을 이루고 둘째, 우리 Ainos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꾀하고 또한 새롭게 Classic 음악에 입문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여는 데에 본 Music Camp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중/고등부로 구성된 Ainos 1기의 경우 본 Summer Music Camp를 수료한 직후 Queens College Lefrak Hall에서 NYLO Youth Orchestra와의 합동 연주회에 참여하게 되며, 그 외 2기 단원들 또한 4일간의 Summer camp 기간 동안 각 악기별 전문 전공 교사들 (우리 관현악단 소속의 전문 전공 교사들과 NYLO 소속 전문 교사들이 함께 헌신합니다)의 교육 아래 한층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실력

향상을 꾀하게 됩니다. 또한 Classic 음악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각 악기별 특징과 교육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접하시며 체험하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됩니다.

혹시 자녀분들의 Classic 음악 교육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물론 기초부터 체계적인 Private Lesson이 필요하고, 많은 경우 학교에서의 음악 활동을 통해 Classic 음악을 배우고 교육받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우리 퀸즈장로교회 Ainos Youth Orchestra에서의 활동을 통해 세상의 음악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비파와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의 멋진 모습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 특별활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다양한 재능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이를 실제 훈련과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Ainos의 여름은 뜨겁습니다. 열정으로 연주하는 음악이 있어 뜨겁습니다. Ainos의 여름은 또한 시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준비한 악기 연주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어 우리 Ainos의 여름은 또한 시원합니다!





방송실엔 예배의 숨결이...

TECHNOLOGY ART SERVICE & WORSHIP

방송영상부 신성근 집사

스피커 33개, 스피커 앰프 6대, 마이크와 악기 60여개, 스피커 프로세서 5대, 카메라 및 그래픽 기기 14개, 녹화 기기 4대, 조명 기기 50여개, 대형 프로젝터 2대, TV 5대, Audio Mixing Console, Video Switcher, Lighting Controller, Video Network, 셀 수없는 각종 컨버터 및 분배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 ...

이 모두를 다 통틀어 우리는 방송실이라고 부릅니다.

방송실에는 “Technology” 가 있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는 신념을 가지고 최근 2-3년 동안 업그레이드한 퀸즈장로교회의 Main Audio/Video 장비들은, 예전의 설치업체 위주의 업그레이드와는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교회 시스템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방송 담당자의 직접적인 시스템 디자인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의 해결, 현재의 필요성, 그리고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까지를 철저히 계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200여대가 넘는 Audio/Video 장비들이 하나로 묶여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급변하는 Live 상황에서 재빠르게 대처, 단계적인 Backup System까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운드가 잘 안들리는 문제, 비디오 화면의 화질과 노이즈 문제, 운영자들에게 요구되어왔던 여러가지 실질적인 문제들이 최근 업그레이드를 통해 해결

되어 예전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더욱 더 세련된 모습으로 실현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실의 일은 “Art” 입니다.

아무리 비싼 장비,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좋은 소리, 멋진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예술가들의 역할이자 역량입니다.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적절한 마이크 선택과 Mixing & Mastering, 그래픽 디자인, 글자 크기와 위치, 색깔 등등... 모든 요소들이 예술적으로 적절하게 배치되고 합쳐질 때 퀸즈장로교회의 전통을 담고, 새로운 비전의 세련됨까지 겸비한 사운드와 영상이 나오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방송실의 Artist들은 남들이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글자 크기 1 포인트 차이를 구별해 내며, 한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요소들의 위치를 황금비율에 맞게 구성하고, 0.5 데시벨 이하의 작은 소리 차이에도 예민하게 반응해 더욱 완벽한 소리와 영상을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추구한 사소한 완벽함이 모였을때야 비로소 모든 성도들이 보고 듣는 멋진 화면과 좋은 소리가 가능해 집니다.

방송실 사역은 “Service” 입니다.

설교때의 성경구절, 기도할 때와 찬양할 때의 적합한 환경과 분위기... 이 모든 도구들이 성도들이 각 시간과 순간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더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

다. 이것을 위해 방송실은 어떠한 상황에도 눈을 감지 않으며 stage상황에 집중함과 동시에 음향, 영상, 그래픽, 조명, 녹화, 송출까지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모니터링합니다. 0.1초라도 반응이 늦었을 경우엔 성도들과 인도자의 지금 순간에 방해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요하며 진행합니다. 또한 간결하고 명확한 광고 제작, 특별제작 영상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정보전달과 행사 참여의 격려의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방송실은 “예배(Worship)” 가 있는 곳입니다.

이 모든 Technology, Art, 그리고 Service를 합쳐서 저희는 예배(Worship)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다른 성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배입니다. 수련회에 갈지 말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영상을 보고 결정 할 수 있게 해주는 예배입니다. 아파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집에서 하나님 임재의 순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예배입니다. 교회를 찾고 있는 외부인들에게 교회를 소개해주는 예배입니다. 방송실 운영의 기술력, 예술적 섬세함과 돕는자로서의 역할, 이 모든 섬김이 바로 방송실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킹스콰이어의 찬양



앙상블 이니즈(Ensemble [iniz])와 함께 한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7월 27일 수요일예배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갖는 찬양예배와 달리 앙상블 이니즈와 함께 클래식, 재즈, 영화음악 속의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곡으로 어우러진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로 드렸다.

이니즈는 'IN HIS'의 발음기호를 그대로 사용한 [iniz]로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 교수이신 심상종교수를 주축으로 이윤석교수와 미국에서 합류한 박소정집사로 구성이 되어있다.

특히 이윤석교수는 본 교회 출신 최희정자매의 부군으로 학생시절 저희 교회에서 조형미술 설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설치된 작품의 부제를 '춤추는 십자가'라고 당시 청년담당이셨던 담임목사님께서 명명해 주셔서 더욱 빛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니즈가 미주공연을 하면서 꼭 청년시절 믿음의 반석을 굳게 하며 은혜 받았던 본 교회를 들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공연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을 위한 곡(Concerto in D Minor for Two Violins)을 연주할 때는 색소폰(Saxo-

phone)이 내는 소리라고 믿기 우기 어려운, 높은 음의 세밀한 소리가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영화 The Mission에 삽입되어 잘 알려진 Ennio Morricone의 가브리엘 오보에(Gabriel's Oboe) 등 여러 곡의 아름다운 선율로 수요일 밤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주셨다.

이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니 오랜 시간 피바디 대학원, 버클리 음대, 뉴욕 메네스 음대 등 유명한 대학의 어려운 음악석사 과정과 수많은 독주회를 거치며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세상으로 나가면 화려하고 보장된 출세의 길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하여 헌신하였다고 한다.

앙상블 이니즈가 세밀한 음까지도 신경 써서 정성을 다하며 화음을 이루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고, 한 음 한 음 최선의 호흡을 가다듬어 드리는 진지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재능을 우리에게 각각 주셨고 이 주신 재능을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섬김에 쓰여 오직 그 분만을 경배하여야겠다는 다짐을 다시하게 되었다.